



攝信慈度
心實愛世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東友會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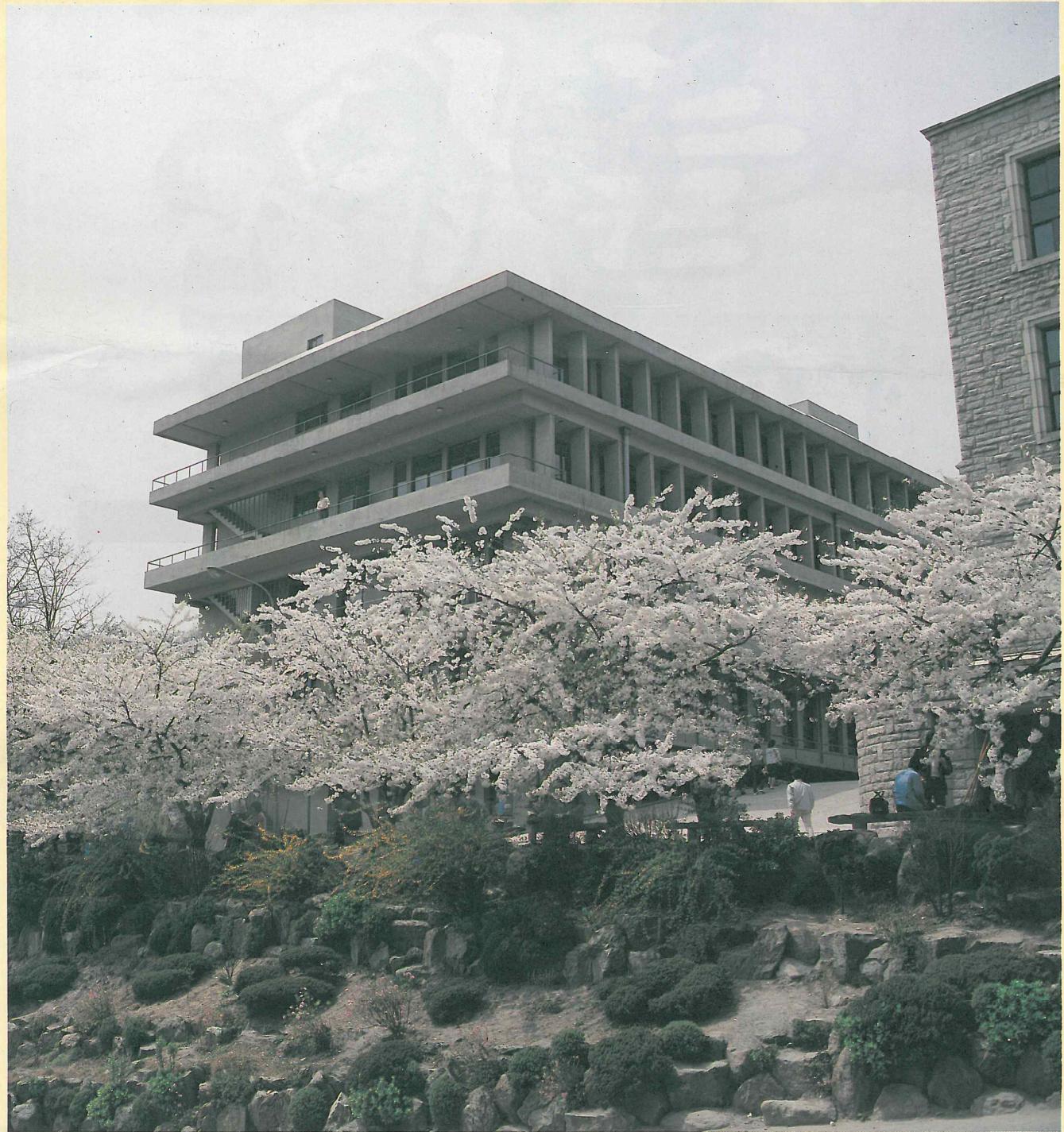
1988年(檀紀 4321年) 3月 31日 第 131號 [1]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鄭申崔
在益在
哲炫旭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진리의 향기가득한 東岳의 봄



진흥상호신용금고는 금고업계 최대의 자본규모, 유일한 상장회사 입니다.



대출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진흥상호신용금고는 항상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가계 및 사업자금이 필요하신 고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대출에 문턱이 없는 진흥상호신용금고를 이용하시면 신속·간편하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
 - 일반대출
 - 부금대출
 - 부금급부
- 어음할인
→ 신용보증서 대출
→ 가계자금신용대출

여유자금을 가지고 망설이십니까?

- 모두가 믿고 찾는 진흥상호신용금고를 이용해 주십시오.
- 진흥상호신용금고는 업계 최대의 자본규모로 업계 유일한 상장회사입니다.

- 신용부금 (정기적금식) 연 14%
- 보통부금예수금 (저축예금식) 하루 연 8%
- 정기부금예수금 (정기예금식) 15.07%
- 세금우대 종합통장

주식
회사모두가 믿고 찾는 번영의 터전
진흥상호신용금고본점 : 778-6611 (한국은행옆)
영동지점 : 545-3653 (강남구청옆)

科別 동문장학금 있달아

◇ 선배들의 뜨거운 東國 사랑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장학금전달식이 ◇
 ◇ 각 학과마다 속속 이어져 東國의 밝은 내일을 앞당기고 있다. 재학생 ◇
 ◇ 들의 학구의욕과 사기진작은 물론 모교학문의 궁극적 발전에 크게 기여 ◇
 ◇ 하는 격려장학금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東國이라는 큰 뿐 ◇
 ◇ 리로 하나되는 선배와 후배의 독특한 우의를 상징하는 것이다. ◇

각 동문회마다 격려 장학금이 속속 전달돼 후배들의 학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모교학문의 질적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화학과동창회에서 재학생후배13명에게 장학혜택을준데이어 경제학연구회 및 경행과동문회 등에서도 장학금을 전달, 훈훈한 선후배간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있다.

화학과 동창회

화학과동창회(회장=李重和·58화학·세종대 화학과교수)는 지난달 24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회원상호간의 우의를 다졌으며 88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전달, 후배들을 격려하였다.

해당 수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사과정=박상신, 허순옥, 송대경

▲석사과정=김수연, 이영무, 박종우, 정재희, 심인철, 박경희

▲학부=김진희(4년), 이수근(3년), 황계련(2년), 정종영(1년)

FODE 장학회

경제학연구회(FODE)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FODE 장학회(회장=한승덕·68경제)에서는 지난 7일 경상대학장실에서 재학생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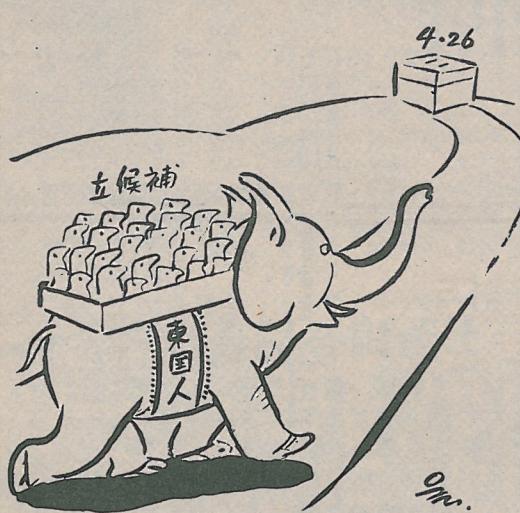
모교 경제과 학술모임으로 발족, 지난 58년 창립된 同會는 경제학과의 학풍진작을 목적으로 매년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해오고 있는데 이번 수혜자는 안상학(경제 4) 군과 이경욱(경제 3)군으로 각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경행과 동문회

경찰행정과 동문회(회장=李璜雨·도교학생처장)장학금전달식이 지난 16일 정오 모교사

東友漫評

鄭雲耕



회과학 대학장실에서 李璜雨회장, 丁炳樂부회장 金鎮轍학장등 이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경행과동문회에서 재학생들의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해 매년 성적이 우수하고 가사가 곤란한 학생들에게 지급해온 이 장학금의 올해수혜자는 다음과같다.

▲김유신(경행 4)▲한도연(경행 3)▲김규만(경행 2)

白象獎學金

모교생 4명에게 지급

白象장학금 관리위원회(위원장=魯柱赫·82농생)에서 지급하는 白象장학금의 전달식이 지난 30일 모교 학생처장실에서 있었다.

지난 81년부터 85년까지 서울캠퍼스 출학생회(舊학도호국단)에서 학생회비중 5%를 적립하여 마련한 이 장학기금은 앞으로 매년 4학년재학생 4명에게 수업료전액을 지급할 예정인데, 올해 수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규일(토목 4)▲정찬호(지교 4)▲전승원(연영 4)▲유정희(영문 4)

「동국 라이온스」

3월 월례회 가져

동국라이온스 309-J 지구(회장 鄭在哲) 3월 월례회가 지난 14일 타워호텔 레스룸에서 있었다.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조직된 同會는 이날, 월례회 및 제 2차 이사회에서 채택된 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보고했는데 1백여명을 목표로 신입회원을 계속 추천할 것과 회원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 회칙으로 통과시켰다.

제14대 任員임용

金東鎮·徐成來동문 理事로



徐
成
來
이
사



金
東
鎮
이
사

APT26동302호 408-7418

▲徐成來=삼화전자 대표
자택=동대문구면목동555-45
249-4242, 435-0303

신입행원 환영회

「產銀 동우회」서

한국산업은행동우회(회장=鄭在鉉·68농경)는 지난 4일 종로 2가 「신라」에서 신춘모임으로 신입행원 환영회를 가졌다.

돈독한 우의와 모교사랑의 정신으로 금융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는 同會는 이날 신입회원이 된 박상일(88경제), 이택우(88경제) 동문을 환영함과 아울러 문법식(74무역) 동문등의 승진을 축하하기도 했다.

승진 및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법식(74무역)=금융 2부과장으로 영진

▲강신제(80토공)=창원지점에서 종합기획부로

▲전호균(86무역)=인사부에서 금융 1부로

▲박상일(88경제)=투자부

▲이택우(88경제)=자금부

<제보: 권혁준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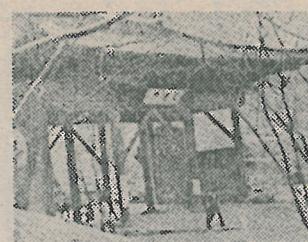
「民主동문회」

초청강연회 열어

민주동문회(회장=申庚林·시인) 초청강연회가 지난 19일 오후 4시 모교 학립관소강당에서 회원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東國을 아십니까?

「앎으로써 사랑하고 사랑하므로써 안다」(知而愛, 愛而知)라는 옛말이 있듯이 東國愛는 동문여러분의 母校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솟아납니다. 本報에서는 동문으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母校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면서 참여하는 東國人像의 정립을 꾀해보고자합니다.



<4> 皇建門

聖像과 더불어 모교의 명물로 손꼽히던 皇建門을 지금 기억하는 동문은 많지 않다.

지난 1971년 12월 10일, 새로 건립될 학생회관과의 부조화로 철거되어 부여 무랑사로 이전한 皇建門은 그때까지 신입생이나 외부인사들에게 東國의 入門으로 62년의 역사

를 새긴 의연한 자세를 자랑하였으며 일본 東京大의 「아까문」(赤門)과도 비교되는 것

운데 열렸다.

I·II부로 나뉘어 열린 이날 행사의 I부 순서에서는 회장인사, 초청강연, 모교「아리랑」씨클의 공연이 있었으며, II부는 동문한마당 및 기별모임 순으로 진행되었다.

同회장은 李喆鎬동문이 유임하고 부회장을 길병만, 조석영동문이 맡기로 했다.

「민족통일 승가회」

지난 12일 발족

모교 쇠림제 13기 졸업생을 주축으로 한「민족통일승가회」가 발족되었다.

지난 12일 대구시 보문사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同회는 민족통일을 향한 불타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수행을 다짐하며 사회정의와 민중이익을 위한 선두에 설 것을 결의하였다.

ROTC 임관축하회

지난 3일 모교 동국관 로비에서



「ROTC 26기 임관축하회」가 ROTC 총동문회(회장=元容璇·남양전기株대표이사) 주최로 모교 李智冠총장, 李璜雨학생처장, 元容璇회장, 蘆德一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모교동국관로비에서 열렸다.

올해 모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는 ROTC 26기생 91名(경주캠퍼스포함)을 격려하기 위해 열린 이날 모임은 축하케이크절단, 명예위원장 회고사, 학군단장인사, 총장격려금전달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元容璇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임관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무척 크다」며 문무를 겸비한 국가의 간성으로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창립된 ROTC 총동문회는 현재 2천 8백여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데 蘆德一사무총장은 올해 중으로 경주지부를 발족시켜 가장 모범이 되는 동문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思索의 廣場

종교와 지도자



李永子

<64불교·모교교수> 기의 문명권에서 생존한 지도자는 나름대로 그 전통있는 종교를 믿고 보호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이래부터 현대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동방에의 진출은 아시아 모든 지역에 새로운 갈등을 초래케 만들었다. 힘의 문명, 지배의 문명의 여파는 우리 동국 대학교 캠퍼스에도 계속 들이닥치고 있다. 이 갈등은 동양인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혼란의 도가니로 계속 몰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유난히 그 색깔이 짙고 공격적인 데가 강하다. 우리 한국인의 기질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우리를 미개한 나라로 보아서 밀어부친 정책 때문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있지만 우리 학교를 기독교화하려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지막 잊슈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듣는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분노한다.

1945년 미군이 일본에 진주할 때 생긴 맥아더 사령부는 기독교 원호정책을 강력히 편 일은 다아는 역사적 사실이다. 맥아더원수는 멀진 마도로스 파이프를 꼬나 물고 동양전역을 기독교화하기를 열원한 군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의 상흔이 아물지 않아 배고파 신음하는 이땅에 미국원조물자를 교회를 통해 나누어 주는 선심을 쓰면서 기독교교회의 확장을 도왔다. 그러면서 이승만, 장개석, 푸리노, 가타야마까지 모든 동양의 통솔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만족해 마지않았다는 일을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한국의 역대 정치지도자도 세사람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이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자는 1천만 기독교인의 결속을 호소하며 표를 벌었다. 관용성 있는 불교인들은 이 구호에 아랑곳 없이 그에게 표를 모아주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현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정치지도자의 종교신앙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는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면에서 아직도 개발이 덜 되어있는 나라, 지적인 수준이 아직 평등하지 못한 나라 사람들의 정치지도자의 종교는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음을 틀림 없다.

왜냐하면 종교신앙은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풀릴하기 때문이다.

다원적인 문명의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현대라는 시점에서 모든 인간의 마음은 자유롭게 강요받지 않고 어떤 종교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는 적어도 전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자기 종교를 검토해 보고 새롭게 다져가야 할 방향설정이 앞서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눈앞의 표밭에만 마음이 쏠려 자기 종교를 이용한다면 이는 참으로 <마음을 비운>지도자는 아닐 것이다.

"정치지도자의 宗敎觀에는 역사적 안목이 필요"



4·19回顧

남산기슭의 신축교사에서 새로운 문화창조의 꿈을 품고 학문에 정진하던 모교에도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到來하였다.

1960년 당시 자유당독재에 항거하여 4·19의 선봉에 섰던 모교생들의 우국충정을 4·19 28주년을 맞아 되새겨본다.

신학기 개학일인 4월 8일부터 갑돌던 대학가의 심각한 분위기는 갈수록 그 긴장을 더해 가고 있었다. 시내 각 대학의 행동통일이 대학생을 대표한 운동위원회에 논의되고 있던 4월 18일, 모교 학생운영회의 간부들도 오후 3시에 긴급소집되어 모교생들이 취할 행동을 토론하였다.

화요일인 4월 19일, 긴장된 표정으로 등교한 2천여명의 모교생들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하였던 듯이 석조관앞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이 집합에는 功名의 행동요령이라던가 장차 일어날지도 모를 어떤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는 일체 말이 없었다. 다만 大學生들은 理性으로 질서정연하게 시위함으로써 자신들의 참뜻을 표현하고자 하는 맹세뿐이었다.

모교 시위대가 교문을 출발한 것은 상오 11시였다. 여학생들도 있어서 올지로를 구보로 달렸으나 의사당앞에 놀라앉은 타교와 합류하게 된 것은 11시 30분경이었다.

각대학 데모대들은 그방법을 둘러싸고 한참동안 옥신각신하였으나 모교생들은 경무대로 직행하기로 하였다.

동아日報 월간부기자 집필의

『四月革命記』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景武臺로 가지....

東國大生들이 선두에 서고 서울大, 成均館大, 東星高校 등 만명이 뒤따른 「데모」 대의 주류는 경무대 앞으로 나갔다. 이때 제 2선에 머물러 있던 서울大 「데모」 대는 달려온 尹日善총장에게 「師大生들이 앞에 나가 있으니 구하러 가지」고 하여 학생들과 「스크립트」을 짜고....

<新東亞 1965. 4월>

있어서는 안되었던 이 비극의 날에 모교생들이 선두를 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울하기 짜이 없는 일이기도。

울하기 짜이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일어나서는 안될 사태가 露呈하고 있었던 이상에는 하루빨리 제거하여야 하며 그 제거 활동인 4·19의 학생혁명에서 발포의 硝煙을 뿐 고 혁명의 조속한 해결을 보게 되었던 것은 景武臺의 데모에 앞장섰던 모교생들의 희생덕이다.

현재도 4·19의 畫報에 이 데모의 극렬한 장면으로 반드시 게재되는 景武臺 앞에서 수도파이프를 굴리며 경찰발포에 대항하며 쓰러져가는 학생들의 사진은 그 대부분이 東國大學생이었던 것은 데모광경 사진에 학교플래카드를 말소하지 않은 외국잡지를 보면 선명하나

타나고 있다.

이 學生혁명에서 데모대의 선두를 달리던 모교 법정대학법학과 3학년 재학생 蘆熙斗(당시 21살)이 散華하였고 재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 중상을 포함한 많은 부상자를 내게 된 것은 애석한 일이었다.

4월 19일의 부상자는 다음과 같다.

이도인(법학 2), 전대가(경제 2), 김동섭(정치 3), 강상한(경제 2), 이기원(영문 3), 정두춘(정치 3), 정원영(법학 4), 김반우(농학 1), 김철정(연예 1), 박종(농학 4), 정형태(법학 1), 문경호(영문 4), 김달호(영문 4), 남일(정치 3), 심달호(농학 3), 문정호(농학 3), 박창여(경제 3), 이정인(법학 2), 박홍규(농학 2)

권태호(국문 4), 이태조(농학 3), 전대길(농학 3), 이영구(경제 3), 이종학(농학 2), 이봉구(국문 3), 이종희(정치 2), 김만영(상학 2), 박종구(경제 2)

이외에도 박영환, 신현식, 김용철, 김용덕군등이 부상으로 입원하였다.

4·19직후인 23일에 대한교육자연합회에서 개최된 4·19 대책 수습위원회의 석상에서 白性郁총장은 「이번 데모는 시민들이 했어야 할 것을 학생들이 대신 하였으니」라는 의미심중한 발언으로世人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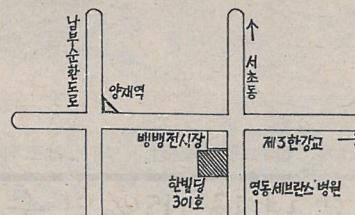
언제나 정의를 위해 불끈 일어서는 동국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東大70年史」에서>

맥(脈)을 알고 投資 합시다

不動產

全般에 관련된 모든 問題 해결·알선 상담



서울綜合開發株式會社

附設 國土綜合開發研究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道谷洞 943-7

(韓 味 邊 301 號)

567-0057~8(代) 555-7937(直)

代表理事 金昌植 (68英문)

선대위원장은 맡아 지역주민과
도 친숙한 인물로.
전화: 수원 47-2700

◇ 제 13 대 국회의원 입후보 동문



1·12대에 각각 18명의 ◇
이번 13대에서 또 열 ◇
을 험난한 금빛지高地로 ◇
슬로건등을 알아본다. ◇
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 ◇
<편집자註> ◇

종래를 선언한 윤동문은 본회 지
도위원으로 활동중.
전화: 부산 553-6616

◇ 大 邱
지조지킨 참일꾼

辛達善 (72
大邱)
△ 民主·
共 · 立
行
事
業
△

로전으로 득표활동중.
재미체육회 부회장·재미호남한
우회 이사장 역임.
전화: 인천 422-8005

독주냐? 견제냐?

明華燮 (81
大邱)
△ 民主·
共 · 立
行
事
業
△

30여년간 줄곧 야당의 가시밭
길을 걸었으며 3차解禁, 지난 12
대에 당선된 데 이어 재선했을 노
린다.

忠南 3대 道議員 (60년) · 구
신민당 야당성회복 투정동지회 중
암의장을 지냈으며, 민推운영위
원과 부간사장·민주산악회 부회
장·국회상공위 간사·민주당 사무
차장·대통령선거대책본부 총무위
원장 등의 활약을 보였다.
외교수 야당의 선명성으로 지지
기반이 넓은 지역구에서 재출마.
본회 이사.
전화: 인천 424-8939

전화: 대구 555-2171~2

◇ 光 州
한국은 광주를....

李榮一 (73
光州)
△ 民正·
共 · 立
行
事
業
△

11대 全國區에서 12대 지역구
(광주 서구) 당선. 이번에 3회
을 노린다.

71년 統一院 상임연구위원으로
발탁된 이래 통일연수소장까지 10
여년간 통일업무에 종사해온 만큼
내외정세를 보는 시각이 뛰어나다.

母校 강사를 지냈고, 민정당 청
년국장·정치연수원장·총재 비서
실장을 겸역해 국회본관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남북고위대표회담 대표이며, 각종
국제외교분야에서 한국대표로
활동. 본회 이사.
전화: 광주 362-9595

지역사회에 공헌

南平祐 (69경제)
△ 民正·
共 · 立
行
事
業
△

경기도를 출입한 南동문은 대
학졸업후 30여년간 수원에 살며 운
수업에 종사. 白手成家한 케이스.

첫출마리 지명도가 약하지만 지역
사회에서의 신망도는 타후보를 압도한다.

경남여대 대표이며 경기도버스
운송사업 조합 이사장, 수원상공회
의소 상임위원, 도정자문위원, 경
인일보 이사등 밭이넓고 튼튼한
조직력이 큰집.

지난 대통령선거 때 민정당수원

再選의 달변가



趙炳鳳 (67
大院)
△ 民主·
共 · 立
行
事
業
△

3선에 도전하는 관록파. 次官
級의 관경력과 약관 25세에 경
기도 議會議員을 지낸 인물.

훤칠한 키와 빼어난 용모가 어
필하는 胜은문은 원만한 대인관
계와 치밀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추진력을 인정받는다.

무임소장관 보좌관·한일의원연
맹간사·민주화추진협의회 운영위
원을 역임하고, 현재 統一民主黨
중앙상무위원회의장, 본회 이사.
전화: 구리 66-2654

正義와 良心의 選擇



朴旺植 (68
政治)
△ 民主·
共 · 立
行
事
業
△

현統一民主黨 원내부총무로 재
선에 도전한다.

6·3 투쟁 및 3선반대 투쟁으
로 옥고를 치른 밤글로 「정의와
독재의 대결, 암살과 돈에 대한
심판」을 캐치프레이즈로하여 총
력을 기울인다.

민주당 당기위부위원장, APP
U한국대표, 한·페루·세네갈의원
친선협회이사 등을 역임. 본회 이
사.

전화: 수원 43-8473

야당다운 野黨

李慶容 (69경제)

△ 民正·
共 · 立
行
事
業
△

본교 졸업 후 교사생활을 하
다 뜻한 바 있어 政治新人으로
「야당다운 야당에서 참된 야
당인의 도움을 보여주겠나」며
표발 일구기에 하루해가 짧을
지경.

원안하고 다정다감한 성품과
교단시절 몸에 배인 선비기질이
증화되어 고한 진화력을 이끌어
내며, 짙은 층의 호감을 사고있
다고.

경한무역상사(株) 대표이사·金鍾
泌총재보좌역 등을 역임
전화: 부천 665-1145

新鮮한 충격의 鎚음



金貞雲 (76
金大)
△ 民正·
共 · 立
行
事
業
△

「신선한 충격, 깨끗한 짙은이」
를 캐치플레이즈로 내세운 金동
문은 야당인더운 야당인이 되어
보겠다는 포부로 정치에 입문, 초
선에서의 당선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공화당에 입당하기 전의 정치
경력은 기반으로 하여 구태에 물
들지 않은 깨끗함을 최고의 무
기로 삼는다.

승리기획대표·법무개발대표역
전화: 부천 653-5398

地域別	성명	卒業 区分	政黨別	地域區
서 울	成 正 基	51 정치	공화	노원甲
	崔 戴 九	52 국론	공화	강남甲
	高 炳 錦	59 경제	공화	강서甲
	李 相 倫	60 정치	민주	강동乙
	朴 完 一	61 불교	민정	은평乙
	張 天 錦	61 경제	민정	도봉甲
	張 忠 準	62 경제	민정	강동乙
	金 榮 龜	64 수학	공화	용산
	樸 松 雄	65 행정	민주	영등포乙
	李 元 範	68 교원	민주	서구乙
仁 川	朴 宗 菩	83 행원	민주	도봉甲
	金 益 重	86 대원	공화	강동甲
	姜 奉 秀	87 행원	국민	강남甲
	申 相 守	88 경제	정의	성동丙
	池 穎 圭	88 전자	민중	종구
	金 山	63 정치	민주	동래乙
	辛 達 善	72 행선	공화	서구乙
	車 相 烈	68 철학	평민	남동구
京畿	車 明 華	81 행원	민주	남구乙
	李 榮 一	73 행원	민정	서구甲
	朴 志 達	58 경제	민정	화성
	南 平 祐	59 경제	민정	수원乙
	趙 炳 凤	67 내원	민주	구리
	朴 旺 植	68 정치	민주	수원甲
	李 廉 容	69 경제	공화	부천南
	金 貞 雲	76 식공	공화	부천中
	鄭 在 實	76 경원	민주	가평·양평
	朴 濟 相	80 행원	공화	안양乙
江 原	金 正 泰	83 경영	민주	수원乙
	黃 圭 宣	85 문석	민주	이천
	鄭 在 哲	52 정치	민정	속초·고성
	李 洪 晚	63 경제	공화	동해
忠 南	李 延 晚	52 정치	민정	영월·평창
	黃 明 秀	53 정치	민주	온양·아산
	李 肯 瑶	65 법학	민정	서천
	朴 熙 富	65 법학	민주	대덕·연기
	朴 東 仁	65 법학	민주	천원
	金 定 信	67 정의	민주	금산
	金 洪 萬	71 행정	공화	대전中
	朴 泰 樫	73 정의	민주	서산
	趙 丙 錦	74 법학	평민	천안
	朴 賛 中	74 행정	한겨레	금산
全 北	申 東 國	87 경원	평민	대전乙
	朴 雨 韶	88 대원	한겨레	논산
	梁 旭 植	78 행원	민정	남원
	權 魯 甲	58 영문	평민	목포
全 南	金 慎 順	61 정치	평민	여천
	金 吉 坤	66 정치	평민	답양·장성
	李 基 宇	경제	한겨레	순천
	李 沢 和	54 법학	민정	진주·군경
慶 北	具 滋 春	75 대원	공화	고령·달성
	金 東 英	60 정치	민주	거창
	李 福 論	68 경행	공회	울산南
	李 廷 勳	69 경영	한겨레	충무 고성 통영
濟 州	李 尚 玳	69 행원	민주	삼천포·사천
	李 起 彬	79 경원	무소속	북제주

총 57명

▲ 위명단은 本會사무국 및 신문지상을 통해 파악한 것임.

작은巨人, 우리친구



鄭在寅
△民主
△加賀
△平
△政
△經
△

는 달 위원 등을 지냈고, 民推協
상임운영위원회와 평화통일촉진회
정책심의위원회로 활동했다.
金泳三대통령후보 이천선거대
책위원회으로 지지노가 높은 鄭
동문은 「이천의 명예를 되찾겠
다는 슬로건으로 金泳三에게 힘
해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화: 이천 2-6349

◇江 原

對話정치의 주창자



鄭在哲
△民主
△正
△社
△國
△政
△經
△

지난 12대에 이어 다시 금
빛제에 도전하는 鮑明野人。
舊 신민당시절 3選擧에 반
대투쟁으로 옥고를 치르고, 그
로 인해 老母가 失明을 하는
등 남다른 고난을 겪었으나,
20년 3起를 노리는 「오우기 체
질의 사나이」이기도 하다.

김영삼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
원장을 역임하고 현 민주당당
평·가령지구당위원장.
전화: 가령 82-1949

安養의 良心의 代辦人



朴濟相
△民主
△和
△安
△行
△院
△

제 6, 7, 8, 11대에 이어 안
양에서만 5번째 입후보하여 四
顯五起의政(?)를 창조하
려는 의지의 東國人。

안양에서 나고 자라 누구보
다도 인연을 잘 아는朴동문은 「안양시민의 암암적인 대변
자」로 현신하겠다며 표를 가
꾸기며 腐心中이다.

국회사무처 3급甲職의 관직을
거쳐, 방송사 입사·현법해설위
원을 역임했으며 대한상운(株)
대표, 세방률산(株) 대표, 共和
黨중앙위원회 활동 중.
전화: 안양 48-5888

야당체질개선 노력



金正泰
△民主
△主
△經
△

지역사회에서 굳건한 기반을
다져온 李洪燮은 첫출마에 의해
온 득표활동을 벌이고 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2대째 당선한 바 있으며, 강원
지구 JC 회장·목동양조조합조
합장 및 각종 체육사회단체의 임
원 등을 역임, 지지기반이 넓다.
현재 東海市상공회의소 회장·
합자회사 동양상사 대표·부광
광산 대표로 활동중이고, 토박
이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
겠다는 흥보자로 표밭을 일
군다.
전화: 동해 32-3943

믿을수 있는 그 사람

嚴晚永 (행원)

<共和·영월 평원>

11대 서울 강서지구 출마(민
권당)이래 두번째로 금빛제에
도전하는 염동문은 ROTC 2
期出身의 文武를 겸한 物
질원지구(?) 등 민·관부들의 복
분을 대변하고자 출마했다는 그
는 자신을 「不義를 보면 못참
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세우고 있다.

軍服務時 保安司에서 근무하
며 政治의 感을 익혔고, 대전종
합건설(株) 대표이사·金鍾泌총
재특별보좌역.
전화: 영월 2-4484

전화: 수원 46-3300

利川의 명예회복

黃圭宣 (85문서)

<民主·이천>

城東高·서울大 치의대를 거
서 예비역 중령(군의관) 예편.
현재 국제민간외교협회 부총
재로 활약중인 黃동문은 서울
YMCA·DMC 회장·장수黃
氏중앙종친회 부회장·치의신보

는 달 위원 등을 지냈고, 民推協
상임운영위원회와 평화통일촉진회
정책심의위원회로 활동했다.
金泳三대통령후보 이천선거대
책위원회으로 지지노가 높은 鄭
동문은 「이천의 명예를 되찾겠
다는 슬로건으로 金泳三에게 힘
해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화: 대덕 2-0419

전화: 영월 2-4484

◇忠 南

民主民權 풋피우자



黃明秀
△民主
△忠
△南
△

제 9대, 11대에 이어 3선을
노리는 중견 정치인. 11대에는
무소속의 헨디캡을 극복했으나
12대에는 「예상외의」 낙선이란 좌
절을 겪기도.

「선명야망 표를 죽이 민주민
권 풋피우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中央무대에서 쌓은 경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11대 국회의정동우회장·통일민
주당 政務委員 등을 역임했으며,
現 民主黨全黨大會議長이며 本
회 委員長.

전화: 온양 43-6800

억울한 사람의 벗



朴東仁
△民主
△天
△原
△

「짓밟하고 버립받고 설움받
아도 일어나는 朴東仁」 동문은
지난 7, 11대의 쟁배를 설욕
하고자 절차부심중.

본교 재학시 4·19주도세력
으로 6·3 반내, 3선개연 투
쟁 등으로 화려한(? 투옥경력
을 자랑하고 있다.
가난하고 권력없고 억울한 사
람의 벗이 되고자 하는 朴동
문은 舊신민당 중앙상무위원·
정책위원회 등을 역임하고 현 본
회 회장.
전화: 천원 62-0419

새시대 瑞山의 氣象



朴泰權
△民主
△正
△

本校 대학원 재학중 경영대
학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朴
동문은 11, 12대에 이어 3번
째로 금빛제에 도전하는 의지
의 동국인이다.

민주협 출판문화국장·통일민
주당 창당발기인 및 同中央常
務委員 등의 긍지한 정치적 역
량과 금화유통(株) 대표이사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새 시대
의 새일꾼, 瑞山의 氣象」을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헌 고교
으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本會 常務理事.
전화: 서산 64-1577

鄭在哲회장 전국 最高得票率 예상

池석규동문 最年少후보로 中區출마

도봉甲等 5개區서 동문끼리 競合

새 시대 새 일꾼



李肯珪
△民主
△和
△

금산의 명예를 지킨다



金定信
△民主
△金
△

天安의 젊은 旗手



趙炳鉉
△民主
△天
△安
△

在席時 하·일글육현정반대부
정위원장으로 맹활약. 4·19 및
6·3同志會 운영위원을 지냈다.
8대 입후보(신민당) 한후
再起를 노린다.

충남도지부 부위원장·당기위
원·중앙상무위원 등을 역임했
고, 민주협 상임운영위 및 地
自制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주당 金泳三전총재 특별보좌역
을 맡기도.
(주) 우일스포츠 代表理事.
전화: 금산 52-2177

古來로 순국선열지사 및 애
당인의 산실이었던 天安에서 「天
安野園의 젊은 旗手」란 기치
아래 첫 금빛제에 도전장을 냈
신인.

民推協 등의 활동을 통해 습
득한 정치역량을 심판 활용하
여 「平和 天安, 民主 天安」을
건설하겠다며 표발나지기에 온
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정지분세연구소이사·민주
협委員·平民黨당발기위원회
을 거쳤다.
전화: 천안 63-5463

25년 외길 저력



朴熙富
△民主
△大
△連
△

겸손한 서민의 대변자



金洪萬
△民主
△金
△

12대에 「천막사무실(?)」을 차
려놓고 善戰한 결과 아깝게 次
點 落選을 한 金동문은 11,
12대에 이어 출생지에서 재출
마한다.

노교 재학시 총학생회장으로
총학생회장을 맡는 등 탁
월한 지도력을 지니고 있으며,
한일글육외교 반대투쟁에도 선
봉을 섰던 热血漢.

출마지를 「길로 뛰며」 온갖 경
조사에 두루 찾아다니며 표발
관리에 총력을 집중한다. 本會
理事.
전화: 대전 253-0035 김홍만

흙 손 농민투사



朴贊中
△賀
△連
△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현신한 정치 초년생으로 첫금
빛제에 도전.

87년 소작 폭락시 7일간의
농성투쟁을 비롯, 4·13 호헌
철폐를 위한 단식농성을 하기
도 한 朴동문은 스스로를 「흙
손 농민투사」라 자칭하는 순
농고기기도.

금산군 카톨릭농민회를 조직
하고 同會고문직을 역임했으며
한겨레당 창당발기인이다.
전화: 금산 52-2886

밝은 政治의 새人物

申東國
△平民·大田東
87·經院

한 예비역 준장(육사 10기)。 민정당 중앙집행위원, 全北 道支部위원장 등黨內要職을 맡았고 國會내무위간사。

예결특별위원회(83·84)교체위원장을, 민정당국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민정당국책조정위원회 화려한 경력을 소유。

11대 이후 농민과 서민층의 대변자로 지역개발에 힘썼던 그의 노력은 학려한 경력보다 더욱 인기가 높다는게 주위의 얘기다. 본회상임이사로도 활동중。

전화: 남원 2-3000

◇全 南 良心의 파수꾼

權魯甲
△平民·履選
58

평민당 총재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權魯甲은 오랜 야당생활

고난의 野黨 33년

李基宇
△咸鏡·全羅
基宇

구민주당 중앙당 조직부차장을 지낸 李基宇는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 청년분과위원장·10월유신반대투쟁위 지도위원장·구민주당 중앙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오랜 야당생활을 한 처녀출마자다.

민주현정연구회 상임 이사와 민주협·건설분과위원장·현정민권회 홍보위원으로 활동했고, 평민당 金大中후보 광주전남選擧對委 지도위원과 중앙당유세위원·전남대책위원으로 역량을 발휘했다.

한국노동연합회 이사장과 순천 승주유학생회 회장 역임。

전화: 순천 2-3201

활약한바있다。
전화: 문경 52-0115

민족과 농촌의 來日

具滋春
△忠清·高麗
75

육군 대령에 편. 신민주공화당 부총재로 경북도지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무부장관·서울시장으로 복 익은 齊東운은 서울시경국장을 비롯 제주도지사·경북지사 등 관료로서의 학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럭키금성그룹 고문으로도 활약했다.

뛰어난 경력과 지역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금뱃지를 거느리는 齊東운의 슬로건은 「민족의 내일, 농촌의 내일이 고장의 뿌리깊은 나루 구자춘」。

전화: 고령 252-0797

◇慶 南

「선명野黨」의 重鎮

金東英
△民主·勤奮
60

「선명野黨」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4선에 도전하는 金東운은 본회 부회장으로 활동, 동국인에게도 친숙한 얼굴이며院內人사령탑으로 괄목할만한 업적을 쌓아 지명도가 높은重鎮의원이다.

구新民黨 조직국장·사무처장·정부위원장을 거쳐 3차례급후 故土地회복에 성공·3선의원이 됐다. 민주당 부총재로도 활약한 金東운은 崔炯佑·黃明秀등으로 활약한 金東운은 8인정치회담의 야당측 대표를 역임하기도。

전남례슬링협회 회장·유봉상 운(주)대표를 비롯 가락金氏전 남종친회 부회장으로 지역구에서 지명도가 높다.

전화: 담양 2-2052

전화: 거창 2-7495

◇慶 北 質사는 내 鄉土

李泳和
△昌原·慶南
54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해온며 충무 시장·밀양군수·문경군수 등 일선기관장을 역임, 서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李泳和은 치밀·정확한 집무능력과 원만한 성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本會 이사로 모교발전에 도크 기 기여해온 李泳和은 在學시 총무처공채에 합격, 관직에 들어가 내무부·농수산부·보건사회부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서울시 은평구청장으로도

동성고 재학시 4·19의 주체로 활약했고 모교재학시 6·3 사태 주역으로 뛰었다.

6·3 동지회 발기인이기도 한 李泳和은 지난 12대에 입후보하여 압록계에 출마한 노력을 보여 「숨은 사회사업가」라는 称聲을 듣기도.

在울산 동성고등학교장·모교 행정대학원동문회 이사. 本會 이사로 교제관계가 두텁고,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 운영해 5,200여건 처리, 지역 신망도도 높은편.

전화: 제주 23-0185

「밝은 政治 참신한 새 人物」의 슬로건 아래 첫 금뱃지를 위해 뛰는 申동운은 이름마저도 東國인 東國人이다.

주로 인권문제 및 고문반대에主力해온前前을 바탕으로하여 10여명이 출마한 同지역에 서의 競戰을 장담하고 있다.

민주협 특별운영위원·한국인권문제 특별위원·고문반대법국민운동 공동대책위원회 등을 역임하며 정치일선에서 남다른 감각을 익혔다.

전화: 대전 624-7820~1

崔載九 5選, 金東英 4選에 도전

서울 16명, 忠南 11명順으로 많아

全國52개 지역구에 총57명 出馬해

썩은 정치 뿌리뽑자

朴雨奭
△咸鏡·論山
88

곁에 3차례급으로 재기, 지역 구에서 첫출마다.

金大中전총재와는 국회의원 비서관(6·7·8·8·8)으로 인연이 되어 구신민당대통령후보비서·민정당당보자역 등 브레이너파로 활동.

72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투표에 되는 등 혼란한 가시밭길을 걸었고, 民推協 창립 60인 중 한사람.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1등으로 삼아 드표활동을 멀치고 있다.

전화: 목포 2-2303

麗川을 지킨다

憲順範
△平民·여전
61

양순진씨의 보좌관역을 하며 익힌 政治力으로 실제 금뱃지를 도전한다.

국회의원 비서실장 및 전국옹변협회이사를 거칠만큼 단련·

옹변기이기도 한 朴潤운은 「국민血稅 駐外하는 썩은정치 뿌리뽑자」고 목청을 드높인다.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중앙회연수국장을 거쳐 선명성을 내세우는 한겨레당 창당발기인을 역임한 純野黨人。

전화: 논산 34-2949

◇全 北

남원의 개발과 발전

梁昶植
△民正·鬱陵
78

「소나무동포여러분, 자갈시민들으시오」의 저자인 憲順範은 11대 때 군소정당(安民黨)의 공천으로 1등당선, 「二順三起」화제의 주인공.

立志의 인생으로도 유명한 憲順範은 지역구민과 막걸리를 함께 마시며 노랫가락도 뽑는 소탈한 성격과 단련으로도 정평이 나았다.

임내수수 부총무·국회운영위 간사·민주협·심상임운영위원·평민당 당헌당규위원회·당무 위원회 등으로 원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본회 이사로도 활약.

전화: 여천 83-2788

本會 이사로 모교발전에 도크

기 기여해온 李泳和은 在學시

총무처공채에 합격, 관직에 들어

가 내무부·농수산부·보건사회부

부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

했고 서울시 은평구청장으로도

지난 민주부쟁시 울산지역 선봉에 섰던 李東운은 그간의 지역사회 활동을 발판으로 드표율 등에 열중하고 있다.

전화: 울산 43-4646

지역발전에 앞장서

諸廷勲
△咸鏡·忠淸道
69
經院

母校 충남생회 부회장을 지내고 경영학과 동창회장을 역임, 모교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온 諸廷勲은 현재 한특전사(주)理事·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1, 12대에서 총전·전국 청년봉사단 일기집회장을 지냈으며, 민한당지구당위원장과 중앙상부위원으로 활약했다.

전화: 충주 72-9740

경륜있는 政治人

李尚玟
△民主·咸鏡北道
69
海雲

10대 때 무소속으로 출마, 거족 鄭憲柱씨를 제치고 최연소當選(36세· 진주· 삼천포· 진양· 사천)으로 화려한 政界데뷔를 한 風雲兒로 3차례급되어 12대에 재당선 2선의원이 됐다.

전국옹변인협회 총재를 지낸 뛰어난弁법을 가진 李東운은 특유의 입심과끈한 인간관계, 구新民黨원내부총무부등의 야당경력으로 넓은 지역구를 누비고 있다.

민주당 최연소 원내정무위원이며 본회이사로서 큰 활약을 펼쳤다.

전화: 삼천포 2-2906

 ◇濟 州
 새濟州의 밀거름李起彬
△우수속·北濟州
79
經院

일찌기 중소기업 경영자협회 회부회장을 맡아 우리 경제발전에 있어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역설, 중소기업육성책에 날다른 관심을 표명해온 李東운은 한강실업고, 학교법인 대기학원(대기고교) 설립 등을 통한 후진양성에도 역할을 두는 등 사회사업에 남다른 노력을 보여 「숨은 사회사업가」라는 称聲을 듣기도.

2천년대를 향한 새 济州의 밀거름이 되리라는 슬로건 아래 초선에 도전하고 있다. 현재 대기고교 총장직에 있으며 본회 상무이사로 활동중.

전화: 제주 23-0185

地域同門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慶州에 특수대학원 설립추진

캠퍼스 설립 10주년 기념사업 논의

교 경주캠퍼스에 특수대학원 설립이 추진 중이다.

李智冠도교총장은 지난 4일 경주캠퍼스를 방문, 閔丙天부총장을 비롯한 고교단부, 경주총학생회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대학원설치의사를 밝혔다.

경주캠퍼스설립 10주년기념사업이 논의된다는 간담회에서는 캠퍼스의 질적향상방안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벌였는데, 李총장은 「10주년기념사업은 재정적 사업보다 발전적 방향모색을 위한 세미나·학술발표회등을 개최하고 대학원설립은 내년도에 1개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며 특수학과신설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7일 열린 경주캠퍼스교수·학생간담회에서 10주년기념사업은 「동기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 학술행사와 견학이념에 상응하는 법령간접, 기숙사증축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선 취업전담기구를 오는 4월초까지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新任教員 26명 임용

서울11, 경주17명 등

교당국은 88학년도 새학기를 맞아 지난 1일자로 서울캠퍼스에 11명, 경주캠퍼스에 17명 등 총 28명의 신규교수를 채용했다.

이번에 새로 임용된 신임교원은 다음과 같다.

◇불교
▲徐盛源=인철과 대우조교수
◇문과대
▲崔範勳=국문과 부교수▲朴鍾鉉=국문과 조교수
◇이과대
▲金洪範=화학과 대우조교수
◇경상대
▲洪升基=무역과 대우조교수
▲安重鎬=정관과 조교수
◇공과대
▲李聖哲=토공과 대우조교수
▲申宰浩=전공과 조교수 ▲田英一=건축과 대우조교수 ▲朴正克=회공과 대우조교수
◇사범대

▲崔淳烈=국교과 조교수

◇인문과학대

▲尹炳植=불교과 조교수▲李萬一=불교과 전임강사▲崔昌植=불교과 전임강사 ▲盧明姬=일문과 전임강사 ▲舒曼麗=중문과 대우 전임강사 ▲全峰辰=고미과 조교수 ▲金吉雄=고미과 전임강사 ▲裴義男=철학과 조교수 ▲李秉希=아동과 대우 조교수 ▲李點源=미술과 대우

전임강사

◇자연과학대

▲卞正龍=전산과 대우전임강사

◇법정대

▲洪裕碩=법학과 대우조교수

◇상경대

▲嚴琦燮=경제과 대우조교수

▲林培根=경제과 대우조교수

▲Lyne Coville Jeon=관광과 대우전임강사

◇기초학부

▲李東雄=대우조교수

총학생 회장에 최재성군

여총회장엔 신미숙양 당선



당선되었다.

지난 29일, 30일 양일간 실시된 이번 선거에는 일부 보이 코트운동의 영향으로 총유권자 9천 7백 81명중 5천 1천 18명이 투표해 52. 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는데 기호 1번 최재성·이현영조가 3천 1백 11표(지지율 60. 8%), 기호 2번 권용석·최세월조가 1천 8백 48표(36

%)를 얻어 1천 2백 68표의 큰 차이로 기호 1번이 압승을 거두었다.

한편, 제 4대 총여학생회장에는 「맞은손 손 무드진 가슴 하나되는 여학생회」라는 가치 아래 단독임후보한 신미숙(일문 4)양이 당선되었다.

“동문國會議員 만들기에 한마음”

금뱃지 항해 뛰는 同門

나라인이 온통 총선분위에 들떠있는 가운데 교과와 본회에도 선거열기가 가득.

이번 13대총선에서 전국 52 개지역구에 8개정당(무소속 1명) 소속으로 57명의 동문이 출마하여 교과특유의 동국투혼으로 금뱃지를 항해 열전을 치루고 있는 숭이리는데….

국민의 대표이자 동국의 선랑인 동문국회의원을 보다 많이 배출하여 다시 한번 政治東國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도록 동국인 모두가 앞장 서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新入生, 모교에 활력소

험난한 역경의 역사속에서 도 민족사학의 선구자로 굳

예비 同門 3,710명 入學



교 88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일(경주캠퍼스 5일) 오전 11시 대운동장(경주캠퍼스 문부관)에서 있었다.

이번 입학식에는 총 3천 7백 10명(경주 1천 5백 30명 포함)이 모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전체 수석은 의과대학을 지망한 金鎮九(경주고우)군이 차지했다.

한편 88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적응지도가 지난 2월부터 4일까지 각 단과대학별로 교내 일원에서 실시됐다.

써클 문화제

신입생 환영행사 일환

교 써클연합회(회장=김선희·사학 4)가 주최하는 「신입생환영 써클문화제 습지」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열렸다.

신입생들에게 써클문화에 대한 이해를 돋고 올바른 대학

문화의 위상정립을 위해 실시한 이번 예술제는 분단의 아픔을 그리 「행위예술공연」과 노래극 「까지마다 가는길」 등 각 써클별로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다.

東國人 등산대회

내달 16일 북한산일원서

「제19회 4·19기념 동국인등산대회」가 오는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4·19기념탑(수유리소재)을 출발해 북한산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대회는 4·19의 거의 창건을 기리고 전동국인의 체력향상 및 친목도모를 위해 지난 70년대부터 매년 4월 19일을 전후해 열리고 있는데, 참가번위는 모교 교직원, 재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팀(리더 1명·대원 3명)으로 하고 있다.

함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혜로 학문을 갖고 뛰어 그에 애분인 「동문애」 가꾼에 머물 목의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줄잇는 후배사랑

선후배간에 돈독하기로 소문난 모교에 요즈음 후배들을 아끼주는 선배들의 정성이 더욱 지극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케 하고 있다는데….

새학기를 맞이하여 화학과·경계과·화학과·화학과를 비롯한 각종 동문장학금이 있달아 지금되어 후배들의 면학정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동문과 재학생의 사이를 이어주는 이러한 「후배사랑하기」가 계속되어 東國 1백주년영광을 향해 선후배가 2인 3각으로 힘찬 걸음을 내딛기 바란다.

동문과 재학생의 사이를 이어주는 이러한 「후배사랑하기」가 계속되어 東國 1백주년영광을 향해 선후배가 2

인 3각으로 힘찬 걸음을 내딛기 바란다.



동문국대동동창회 움직임

전히 배움의 삶아답을 지켜온 동국이 새로 3천 7백 10명의 고끼리 가족을 맞이해 신이주를 맞이하여 모교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것이라고.



동문국대동동창회 움직임

이를 기쁘게 생각하는 동동우 네족질로 첫인사 드리며 입학생 여러분께 한마디 전해드립니다. 大學으로의 첫발은 곧 동문으로서의 첫발입니다. 미움의 고

“장학금으로 이어진 先後輩之情”



現代自動車(株)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그렌저” 판매개시

판매장: 柳在善
(70농경·ROTC 8기)

TEL 271-3103~7
아간 914-6584



대우자동차(株)

‘87신형 정통 고급승용차 탄생

로얄시리즈(듀크·프린스·실롱·수퍼실롱)
월드카 르망시리즈(GSE·GTE·레이서)

TEL. 540-4740(직)
(야간) 487-7539

판매과장: 崔鉉石(74년영)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 B/D 1층)

■ 西独 보쉬 純正品

연료 절감

엔진 출력 증가/수명 연장

■ 적용 차량

현대·대우 全 차종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Plastic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録·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

信一金属센터(株)

활동판·銅파이프·비철금속 일체

대표이사 金鍾葉(84경원)

본사: 서울 종로 읊지로 3 가 251-3
266-6662, 265-3258
지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58
924-6662, 924-6363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절외)

■ 사무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 혼례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 (70경영)

洪性裕 人生劇場

將軍의 아들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먹황제 金斗漢의
끝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將軍의 아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제5, 6권 연속 출판!

홍성유 인생극장 〈장군의 아들〉은 우리 시대의
신화적 인물 金斗漢을 주인공으로 홍미
진지하게 펼쳐 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 소설
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전개, 깊澈한 일담,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침체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鎮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임꺽정의 배짱과
돈기호태의 진지함 대부의 균성으로
빼았긴 땅에서 주먹계의 황제로 등극 日帝의 무리들을
한손에 쥐고 뒤흘들며 민족혼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巨漢으로, 휩싸이는 자의 보호자로, 드디어는 政界的
거물로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섰던 우리 時代 가장
늠름한 대장부이며 大自由人이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作家가 아십적으로
써낸 이 작품 속의 특이한 인물들은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막힌
인생무대로 초대한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걸어온 근대정치·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알게하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먹에 쥐고 뒤흘들었던
격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극적인 삶과 죽음!
물론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野史 에도 正史에도 기록되지 않은 숱한 사람
들이 이름을 간질한 일본 야쿠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렁뱅이 접대부들, 민족 수난의 암흑기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며 자유와 정의의 꿈에
서서 눈부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과문!

* 전6권 / 국판·각권 300면내외 / 각권 값 3,300원 * 날권판매 * 서점에 있습니다.

**재회의 기쁨—
노스웨스트가
운항을 재개합니다.**

노스웨스트가 1월부터 한-미간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7대 도시로 기실 분들은 저희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으로 전화만 주십시오. 노스웨스트는 서울발 뉴욕, 디트로이트, 시카고, 씨애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및 호놀룰루행 뿐만 아니라 미국의 200여 도시로 이어지는 편리한 노선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간 솔직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며 대해 심심한 시기를 드리며 한국의 승객 여러분을 다시 모시게 되어 무관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스웨스트로 오십시오.

재회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약전화: 734-7800, 735-8500

NORTHWEST



LOOK TO US NORTHWEST AIRLINES